

“차세대 스마트폰, 노트북 성능에 AI·VR도 자유자재”

(인공지능·가상현실)

Arm 기자간담회

모바일 프로세서 IP 제품군 발표
암코텍스 연산칩, 성능 끌어올려
4K 콘텐츠 넘어 8K UHD 지원

19일 암(Arm)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들어갈 새로운 IP 제품군을 국내 발표했다. Arm은 현재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연산장치(AP)의 기본을 설계해 공급하는 회사다. 이 발표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 8K UHD 콘텐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rm측은 이 자리에서 연산칩인 암코텍스(ARM Cortex)-A76 CPU가 스마트폰 수준으로 전력을 적게 쓰면서 노트북급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소비용으로 쓰는 스마트폰을 넘어 생산성 작업을 위한 노트북에도 사용할 수 있



19일 Arm 클라이언트 사업부 수석 디렉터 이안 스마이스가 새로 출시된 ARM Cortex-A76 CPU를 설명하고 있다.

도록 만든 것이다. Cortex-A76은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저전력소모 코어를 가진 빅리틀 아키텍처에서 저전력 코어인 Cortex-A55와 함께 사용된다.

이런 성능 향상에 힘입어 이 칩에서는

우리가 노트북PC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10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능은 전작보다 35% 개선되어 PC와 스마트폰에서 빠른 반응 및 안정적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한정된 배

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동일 전력 기준으로 전력 효율성을 40% 높였으며,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머신러닝 성능을 4배 높였다.

최신 스마트폰 트렌드인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 머신러닝 추론을 하드웨어에서 맡는 방식으로 대기 시간을 줄였고 보안 문제를 방지했다. 이 칩 설계를 적용하게 될 아이폰, 갤럭시 등 차세대 스마트폰 성능도 이에 따라 해당기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산칩에 내장되는 그래픽 가속칩(GPU)도 발전했다. 새로 나온 ARM 말리(Mali)-G76은 그동안 CPU와 GP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던 멀티미디어 엔진을 강화했다. 전세계 콘텐츠 환경이 4K를 넘어 8K UHD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및 기타 장치에서 8K UHD 콘텐츠를 인코딩 및 디코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코딩은 60fps(초당 프레임)까지 지원

하며 8K 인코딩은 30fps까지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Mali-V76이 들어간 스마트기는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는 30fps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역폭과 처리량이 향상되면서 4개의 4K 영상을 60fps로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업체는 최대 4개의 서로 다른 영상을 한번에 UHD급 영상 미리보기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풀HD(1080p) 동영상에서는 최대 16개의 영상 동시 재생을 지원하기에, 이 칩 하나로 야외 전시장에서 많이 쓰는 4x4비디오 월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맡은 Arm 클라이언트 사업부 수석 디렉터 이안 스마이스는 “혁신이 모바일에서 발생하며 작은 스크린에서 큰 스크린으로 확산해 모든 방면에서 과급되고 있다”며 “5G시대가 오면서 관련 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Arm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검찰 고위간부 인사... 윤대진 파격승진

(검찰국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 승진·전보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균택 법무부국장(사법연수원 21기)이 광주고검 검사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등검사장급으로는 유일하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은 9명이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정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윤대진 차장검사의 보임에 대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강력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5기), 공판송무부장에는 김후곤 검찰연수관, 과학수사부장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장이 보임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는 고흥 안산지청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청주지검 검사장 자리에는 여환섭 성남지청 지청장이 앉는다.

이밖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남일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28명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방향에 대해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출신 지역과 학과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고려했다.

이 같은 인사방향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윤대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찰청 강력부장, 김후곤 신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조남관 과학수사부장, 고흥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성진 신임 부산고검 차장검사,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검사, 여환섭 청주지검 검사장. /연합뉴스

24기 6명, 25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며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42명 중 7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병종 기자 joker@

“기본에 충실하며 지속가능한 플랫폼 고민”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취임 일성

모바일 고도화·홈쇼핑 기반 다져
현재는 조직원 복돋아주기 급선무

“모바일쇼핑을 고도화하고 TV홈쇼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두 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경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삼 신임 홈앤쇼핑 대표이사(사진)가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 판매망 외에 티커머스,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등 홈앤쇼핑의 정체성에 맞는 정신을 살려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42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TV홈쇼핑사의 몸집을 의미하는 취급액은 2조1800억원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80% 가량이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이달 7일 취임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최 대표는 가장 먼저 조직 진단에 나섰다. 조직과 구성원을 알기 위해 탐담급 이상을 모두 면담했고, 조만간



홈앤쇼핑 최종삼 신임 대표이사.

전체 직원 인터뷰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 7년간의 경과를 살펴보니 조직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더라. (회사의)고도성장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면서 “종업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대한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방송본부를 새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홈쇼핑은 더욱 젊은 감각으로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본부를 설치해 본부장, 실장, 팀장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활동도 중

요하다. 조직진단이 끝나면 TV와 모바일, 마케팅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의 결과물도 내놓을 계획이다.”

기본에 충실하되 채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홈앤쇼핑은 TV와 모바일, 이커머스를 하고 있지만 티커머스, 카달로그(판매), 해외진출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면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읽었지만 약점을 추가 분석해 티커머스(진출) 등 지속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송출수수료를 내고 주요 채널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떻게 생산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금으로선 조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들)복돋아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1년 당시 지금의 LG전자인 금성전기에 입사한 최 대표는 LG그룹 회장실을 거쳐 LG홈쇼핑 상무를 지냈다. 이후엔 GS올산방송 대표와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을 각각 맡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플래닛, 11번가 분할·SK테크엑스 합병

신설법인 출범 9월 1일 예정

SK플래닛이 e커머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픈마켓 11번가를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킨다.

SK플래닛은 포인트 마일리지 서비스 ‘OK캐시백’과 모바일 지급 ‘시럽 월렛’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플랫폼 사업들을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 합병해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 테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

이다.

SK플래닛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통한 11번가 신설법인의 설립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사업부와 SK테크엑스와의 합병 등 두 가지 안건을 승인했다. 분할 및 합병을 통한 신설법인의 출범은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는 11번가는 서비스와 상품의 혁신으로 1등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SK 그룹 ICT 패밀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와의 시너지 창출과

5000억원 규모의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기반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을 예고했다. 상품 경쟁력에 있어서도 검색부터 주문, 배송까지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11번가는 이미 국내 커머스 시장 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될 경쟁환경 속에서 11번가가 독립 이후 커머스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기자 tree6834@